구름 벗어난 달처럼 부처님께 귀의하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⑲ 앙굴리마라경2

앙굴리마라는 다가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부처님보다는 울며 다가오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취하는 것이 쉽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처님이 앞으로 나오셨다.

"앙굴리마라여, 보아라, 나는 이미 멈추어 있느니라. 머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네다. 하늘은 누굴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대는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다. 바로 이 나무 아래가 그대가 태어난 곳이며 어머니가 너를 안고 기른 곳이다. 어찌 그곳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가? 나쁜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끔찍한 살생을 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해치려는 것을 보니 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어서 빨리 칼을 버려라. 그리고 여래에게 귀의하라. 앙굴리마라여, 떨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래는 크게 인자하나니 바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한다. 너는 여래께 귀의하여 지난 날을 참회하고 정진하라."

앙굴리마라가 두려움에 멍하니 있자 어머니가 먼저 다가가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피 묻은 칼과 손가락꾸러미를 집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출가를 찬성하고 부처님도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그 때 제석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하늘 옷을 공양하며 가사를 만들라 하자 앙굴리마라는 코웃음을 치며,

"제석이여, 내가 이제 막 출가를 결심했는데 이런 값진 옷을 보시 받는다면 내 번뇌와 내 안의 마군을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뭐로 보고 이런 경계에 들게 하는가. 나는 마하가섭처럼 무소유의 두타행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고급 진 옷은 필요하지 않다. 너나 실컷 입어라" 하자 제석이 기가 막혀 이해를 시키려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출가를 했지만 마음에 악심이 남아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청정하게 수행하려 하니 나를 훼방하지 말라며 모든 이들에게 겨우 그 정도의 경지밖에 터득하지 못했냐고 힐난하기 일쑤였다. 잠자코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게 삼귀의계와 5계를 주었다. 그리고 문수사리법왕자와 함께 그를 북쪽의 항하사세계를 지난 곳에 있는 무량혜자재왕여래를 찾아가 여래의 세계, 여래의 몸과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배워오라며 보낸다. 이렇게 앙굴리마라는 이제 비구 가구로서 새로 태어나 바라문의 법을 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어느 날, 탁발을 나간 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겁을 했다. 악마가 부처님 품에 숨어들었다고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얻어맞고 기원정사로 돌아오는 길에 만삭의 한 여인이 그를 보고 놀라 아이를 낳으려다가 그만 숨이 막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돌아와 부처님을 뵙고 그 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출가하여 스님이 된 뒤로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노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라, 어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아이를 순산하라고 해라."

그는 999명을 죽인 자신은 절대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부처님은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부처님께 오계를 받고 새로 태어난 제자 가구다. 비구 가구는 단 한 번도 살생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다." 소리를 치고 가라고 했다. 산모의 집에 다다라 이렇게 말하자 산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파세다닉왕이 연쇄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를 체포하기 위하여 기원정사에 왔지만 개과천선한 그를 보고 부처님께 그를 맡기고 떠났다고 한다. 훌륭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경전을 읽고 난 내 귓가에 머무니 절로 청정해지는 것 같다.

"사람이 비록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고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다."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 공부로 시시각각 소원성취 체험을…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⑱ 일본여행의 추억

몇 년 전 겨울 금강경을 공부하는 도반 10여 명과 일본 규슈섬 남쪽 미야지키시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우리 일행이 머무는 곳은 태평양이 보이는 세라톤 호텔. 태평양 바다가 일망무제로 보이는 5층이었다.

1층에서 아침식사 중, 우리 일행을 안내한 사람은 한국말도 제법하는 일본 여성이었다. 말하는 태도는 단정하였고 용모 역시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말하는 태도나 용모를 보는 순간 어느듯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다. 그에 대한 강한 인상은 비교적 과묵한 나로 하여금 서투른 일본말로 "당신 인상이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게 까지 하였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좀체로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지워지지 아니하였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단정한 모습이 자꾸 마음 속에서 되풀이 되어 떠올랐다.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뿐 아니라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하게 된 나였지만 그를 보는 순간 부처님께 바치는 능력은 다 사라지다니 이 무슨 일인가? 전생의 인연인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공자님은 나이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하시지 않았던가? 금강경을 50년 읽은 사람사람이 공자님처럼 모든 욕망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도 업보를 보자마자 이끌리다니…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잠시뿐 내일 아침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식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그를 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이 계속 부풀어 올랐다.

금강경 공부고 무엇이고 마음은 마냥 소년의 마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준비해간 음식이 많이 남게되자 함께 간 도반들이 내일 아침은 잠자던 호텔방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호텔방에서 식사한다면 당연히 내일 그 일본여인을 만날 희망도 사라지게 된 것인데,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 지고 우울해졌다.

이런 부끄러운 생각, 우울한 생각은 나로 하여금, 다시 금강경 공부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인상이 그 곱다는 얼굴이 과연 누구의 얼굴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괴롭다는 생각이 과연 누구의 마음인가라고 스스로 진지하게 반문하게끔 만들었다.

선지식께서는 그 곱다는 그의 얼굴은 실은 그의 얼굴이 아니요 내 마음이며, 그로부터 나온다는 괴로운 마음 역시 다 내마음이라 하시지 않았던가?

금강경을 독송 중 이런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이 들면서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는 불 수 없다라는 생각 역시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돌아오는 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대형마트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미야지키 쇼핑몰을 두루두루 휘저으며 우산이 있는 곳이면 다 살펴보는데 어느 큰 우산코너 근처에서 쉐라톤 호텔에서 본 일본 여인과 비슷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띠는 것이었다.

아침에 떠난 쉐라톤 호텔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곳에 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에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하며 매장밖으로 나가려는데 아까 본 그 여인이 또 만나게 되었다.

그와 나는 동시에 '어!' 하며 반기었다. '아! 인연(因緣)이네요.' 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튀어 나왔다. 인연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에게 글로 써 표시해주니 그는 즉시에 준비된 전자사전으로 그 한자를 치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침 일요일이고 한가한 시간이어서 시장을 보러 왔다는 것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쫓기어 긴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 밖에 없었지만, 몇 번 생각하여도 이 드라마틱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금강경 공부의 힘, 내 잠재의식이 만든 명령으로 시시각각 소원을 이루게 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백척간두' 에 서면 '이 뭣고' 로 나아가자

'엑스터시(ecstasy)' 는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속박(束縛)하는 깊은 바다서 허우적 거리는 고통속으로 부터 빠져 나오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자신이 현재 처한 수동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서 벗어나 홀로서기 위한 도전이다.

일본에 하늘로 날라간 '고이' 라는 물고기의 신화(神話)가 있다. 잉어과인 이 물고기가 불가능한 도전(挑戰)을 시도하기로 결심한다. 강물을 역(逆)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는 목숨을 건 결단이다. '고이' 는 매 순간을 집중해 드센 물결을 헤치며 사투(死鬪)를 계속한다. 우리 중생은 지치면 다른 물고기들처럼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한없이 흘러 가고도 싶어한다. '고이' 는 도도하게 흐르는 이 강물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고 싶었다. '고이' 는 뾰쪽한 돌에 부딪혀 피가나고 다른 포식 어류들의 공격에 노출되지만, 이 강물의 원천(源泉)을 향해 외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살은 더욱 거세지고 '고이' 의 체력이 고갈됐을 때, '고이' 를 철저하게 좌절시킬 만한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포수가 앞을 가로 막는다. 여기서 '고이' 는 불가능한 창의력(創意力)을 이끌어 낸다.

"내가 비록 물고기이지만, 물고기 이기를 포기하겠다.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지느러미와 꼬리를 날개로 만들어 단숨에 폭포위로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

'고이' 의 자기 믿음이 그 순간에 그를 한 마리의 용(龍)으로 변용시켜 버린다. 마침내 '고이' 의 신념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고이' 는 그 강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발밑에 아련하게 사라지는 폭포수를 눈물로 바라보며 하늘을 훨훨나르는 자신을 발견한다.

"거짓 나를 진아(眞我)로 착각함으로서 오는 죽음의 공포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으로 '이 뭣고' 하며 나아가면 그 자리가 곧 바로 생사 없는 해탈열반의 본고향인 것이다"

우리들의 신념인 '이 뭣고' 는 사람의 정신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교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비옥한 정원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부(富)가 생산된다. '이 뭣고' 는 소위 기적이라는 것, 즉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의 근원이며, 평범한 사고의 에너지를 영적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런 행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勇氣)와 인내(忍耐)가 수반 되어야 하지만, 그 유일한 신무기(新武器)가 바로 '이 뭣고' 이다.

당신은 시류(時流)에 떠내려가는 맥없는 피라미로 살것인가?

아니면 신념 '이 뭣고' 로 뭉쳐진 성공신화(成功神話)의 활용(活龍)으로 우리의 생사없는 본고향인 자성불 자리로 환지본처할 것인가? 강물이 높은 산에서 시작해 마을과 들판과 큰강을 지나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 강은 사막에 흘러 들어가면 자신의 존재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 공포에 휩쌓이는데, 그때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이 너를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들려온다. 또한 "고이와 같이 네가 강물이라는 아상(我相)서 벗어나, 그 바람에 네 자신을 맡기면 너를 증발시켜 가벼운 구름으로 만들고, 수 백리 산을 넘고 날아가 너를 광활한 바다에 안겨줄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도 거짓 나를 진아(眞我)로 착각함으로서 오는 죽음의 공포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굳은 믿음으로 '이 뭣고' 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곧 바로 생사(生死)가 없는 해탈열반의 본고향인 것이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시방세계현전신(十方世界現全身)이라,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올라 갔으면 '이 뭣고' 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 그러면 비로서 너의 생사없는 본고향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생사(生死)도 바다의 물결이 천파만파 온갖 모습으로 물결친다 해도 바닷물의 본질은 그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BS)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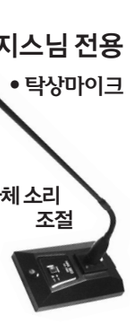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6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